보다 나은 정부 / 식품의약품안전처	설 명 자 료	배 포	2019.2.19.(화)
		담 당 과	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(☎043-719-3203)
		과 장	안영순 (☎043-719-3203)
		사 무 관	설찬구 (☎043-719-3204)

“농가서 셀프 검사하라고?” 한참 빗나간 살충제 계란 대책

[한국일보 2019. 2. 19.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2019년 2월 19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『농가서 셀프 검사하라고? 한참 빗나간 살충제 계란 대책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○ “선별 세척하면 안전한 계란 되나” 항생제 등 잔류물 검사 규정 없어 살충제 계란 감시 여전히 불투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

○ 정부는 ‘식용란선별포장업’을 신설하여 모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최소한의 위생적인 선별·세척·검란·살균 등의 처리 후 포장하여 유통·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참고로 지난 ‘17.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이후,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산란계 농가는 물론 전통시장, 마트 등 유통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 * (‘18년 검사실적) 생산단계 1,342건 검사(부적합 4건), 유통단계 : 2,325건 검사(부적합 5건)

- 이 외에도 식용란을 수집·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집하는 농장별로 연2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 정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식용란 선별포장장에만 안전관리를 맡기지 않고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